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
2011년 7월 26일(화) 오전 1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최규종 전력진흥과장(02-2110-4660), 이재석 사무관(4661)
권오정 에너지절약정책과장(02-2110-4872), 신용민 사무관(4873)
이호준 에너지자원정책과장(02-2110-4868), 정의용 사무관(5412)
김도균 전력산업과장(02-2110-4897), 박정미 사무관(4898)

주택용 2% 인상

▶ 농어업용 및 전통시장 영세상인 전기요금 동결,
▶ 8월 1일자로 전기요금 평균 4.9% 인상

<전기요금 인상>

□ 정부는 8월 1일자로 전기요금을 **평균 4.9% 인상하기로 결정**하였습니다.

○ 현재 전기요금이 **원가의 86.1%에 불과**하지만 **서민부담과 물가영향을 고려해 최소한**의 요금만 인상하였습니다.

<요금조정 주요내용>

□ 이번 전기요금 조정의 방향은 **생계형 취약 부문은 소폭, 대기업과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**해서 **서민층의 부담을 완화**한 것이 특징입니다.

○ **농사용**은 최근 **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**들에 대한 배려와, **농산물 가격인상 요인을 줄이기** 위해 **동결**하였고

○ **주택용**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**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2%만 인상**하였습니다.

○ **일반용**은 **영세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.3% 소폭 조정**하고, 특히 SSM으로 고통받는 **전통시장의 영세상인용 저압요금은 동결**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.

○ **대형건물용 고압요금**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**6.3% 인상**하였고,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을 받은 **심야 경부하시간대 요금을 대폭 인상**하였습니다.

○ **산업용**은 **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.3%만 인상**하고, **대기업용 고압요금**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을 위해 **6.3% 인상**하였습니다.

□ 최근 어려운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**소비성 전력과소비 부문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**해 전력낭비를 억제할 예정입니다.

○ **호화주택**의 경우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전력사용량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키로 하였으며, 에너지 낭비가 많은 **골프장 야간조명시설 등**에 대해서는 **전기 요금 중과를 추진**키로 하였습니다.

<서민지원 대책>

□ 이번 요금조정과 함께 **서민지원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**하였습니다.

○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**복지할인 제도**를 **기존 정률(2%~21.6%) 할인방식에서 정액감면 방식**으로 개선해 **저소득층의 수혜를 대폭 확대**하였습니다.

○ 사용량에 비례하는 **기존의 정률식 할인방식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증가**하여, 저소득층 중에서도 전기를 더 적게 사용하는 **취약계층은 혜택이 적다는 문제점**이 지적되어 왔으나

○ **정액감면 방식은 에너지 저소비 취약계층의 할인율이 증가**하고 과소비 계층의 할인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
□ 향후 정액감면 대상자가 기준 금액 미만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차액에 대해 **현금 또는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**입니다.

<전기요금의 수요조절 기능 강화>

□ **전기요금의 수요조절 기능도 강화**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○ 이번 요금조정에서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는 일반용·산업용·교육용의 경우 **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**하였고, **일반용 고압의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대폭 인상**하였습니다.

○ 또한 8월 1일부터 **주택용에 대해 선택형 계시(季時)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**하기로 하였고,

○ 2012년부터는 **대규모 산업용·일반용 기업을 대상**으로 **전력 피크를 줄일 수 있도록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을 추진**키로 하였습니다.

<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강화>

□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가정이나 기업에서 에너지 효율향상으로 **에너지 비용절감이 가능하도록** 다양한 방안을 부문별로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.

○ **가정** 부문에는 **2천억 규모의 자금을 확보**하여 저소득층·영세상인 등을 중심으로 **에너지 진단과 시설교체에** 필요한 융자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

○ 산업 부문은 전기요금 조정 여파를 흡수하고 에너지절약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

- "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사업"을 **중소기업** 중심으로 **개편**하고, **대-중소 동반감축**을 위한 **그린 크레딧을 활성화**하는 등 중소기업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,

-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**자금, 세제, 법률**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○ 교육 부문은 교육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**진단비용과 ESCO 자금을 확대 지원**하는 등 **그린 스쿨조성**을 추진하겠습니다.

<강도 높은 한전 경영효율화 추진>

□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**최대한 자체 흡수**하기 위해 **한전의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 대책을 추진**키로 하였습니다.

○ 송·배전, 발전 부문 효율화 등 **한전의 내부적 효율 증진**을 통해 **매년 약 1조원 이상의 원가절감 노력을 강구**할 계획입니다.

<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협조 부탁>

□ 이번 요금 조정에서 **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** 가계 총지출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,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유지될 수 있도록 **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**하였습니다.

○ 향후에도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해 제반 시책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

○ 국민여러분들의 **적극적인 협조를 부탁**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전기요금 세부 조정방안

1. '11년 하반기 전기요금 조정

□ 지식경제부(장관 최중경)는 **8월 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4.9%** 인상하기로 결정함

○ 현재 전기요금이 **원가의 86.1%에 불과**하지만 **서민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**의 요금만 인상함

□ 이번 전기요금 조정의 방향은 **생계형 취약부문은 소폭, 대기업 및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**해서 **서민계층의 부담을 완화**한 것이 특징이며,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

○ **(농사용)** 최근 **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**들에 대한 배려 및 **농산물 가격인상 요인을 줄이기** 위해 **동결**

○ **(주택용)**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**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수준인 2%만 인상**

○ **(일반용) 영세 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.3% 소폭 조정**하고, **대형 건물용 고압요금**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**6.3% 인상**

- 다만, **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**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일반용 저압 요금을 사용하는 소매업에 대해 요금 동결을 검토 추진

○ **(산업용)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.3%만 인상**하고, **대기업용 고압요금은**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을 위해 **6.3% 인상**

○ **(교육용·가로등·심야)** 원가회수율이 낮은 교육용, 가로등, 심야 전력 요금은 각각 6.3%, 6.3%, 8.0% 인상

※ 용도별 요금조정안(단위: %)

구 분		평균	주택	일반			산업			교육	가로등	심야
				저압	고압	계	저압	고압	계			
조 정 률		4.9	2.0	2.3	6.3	4.4	2.3	6.3	6.1	6.3	6.3	8.0
원가 회수율	조정전	86.1	87.9	88.2	92.3	90.3	79.5	87.2	86.8	81.9	77.1	66.3
	조정후	90.3	89.7	90.3	98.1	94.3	81.4	92.7	92.1	87.1	82.0	71.6

* 농사용요금은 동결

○ 최근 어려운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**소비성 전력과소비 부문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**해 전력낭비를 억제할 예정임

- 기존 산업용, 일반용 저압고객에게만 적용하던 **과다사용 할증제도**를 **주택용에도 확대 적용**해, **월평균 1,350kWh**(전국 약 5천 가구) **이상 사용하는 호화주택**의 경우 초과사용량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키로 함

- 또한 에너지 낭비가 많은 **골프장 야간조명 시설 등**에 대해서는 **전기 요금 중과를 추진**키로 함

□ 이번 요금조정을 통해 국내 전력소비는 **연간 51억kWh 감소**(총 전력사용량의 1.1%)하고, 연간 LNG 수입금액도 **6,176억원 감소**할 것으로 기대됨

*** 기타 경제적 효과**

- 소비자 물가는 연 0.038%p, 생산자물가는 연 0.122%p 상승 요인
- 도시 4인가구(월평균 사용량 312kWh, 전기요금 4만원 기준)는 월평균800원, 산업체(월평균 전기료 468만원)는 월평균 28만6천원 부담 증가

2. 서민지원 대책

복지할인 지원을 정액감면 제도로 개선

□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**복지할인제도**를 **기존 정률**(2%~21.6%) **할인방식에서 정액감면 방식으로 개선**해 **저소득층의 수혜를 대폭 확대**함

* 정액감면 방식은 전기요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요금 청구하며 **기준 금액 이하 사용자는 요금이 면제**

○ 사용량에 비례하는 **기존의 정률식 할인방식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증가**하여, 저소득층 중에서도 전기를 더 적게 사용하는 **취약계층은 혜택이 적다는 문제점**이 지적되어 왔음

○ **정액감면 방식은 에너지 저소비 취약계층의 할인율이 증가**하고 과소비 계층의 할인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

□ 제도 개선으로 **기초생활수급자**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은 **월평균 5,230원(21.6% 할인)에서 월 8천원(정액)**으로 대폭 확대됨

＊ 정액 감면 수준

◇ 월 8천원은 **기초 생활 유지에 필요한 전력량**을 보장하는 수준

– **형광등 5개, TV(30인치), 냉장고(600리터), 세탁기(10kg)**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

	형광등(5개)	TV(30인치)	냉장고(600리터)	세탁기(10kg)
소비전력(W)	100.0	214.4	62.9	515.0
1일 사용시간(h)	5.0	5.8	24.0	1.5
월 사용일수(일)	30.0	27.1	30.0	15.9
월간 사용량(kWh)	15	33.7	45.3	12.3

○ 아울러 **차상위 계층**의 혜택도 기존 월평균 616원(2% 할인)에서 **월 2천원으로 확대**하여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

□ 저소득층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정액감면 대상자가 기준금액 미만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차액에 대해 **현금 또는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**임

□ 한편 기존 3자녀 가구(20% 감면), 대가구(누진 1단계 하향)에 적용해 오던 할인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**합리적 전기사용 유도**를 **최대 할인 한도를 월 12,000원으로 제한**하기로 함

＊ 대가족 할인 : 300~600kWh 사용량(누진 4~6단계)에 대해 1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

○ 또한 **고소득층이 입소**하는 **노인복지주택, 유료양로시설, 유료노인요양시설** 등은 요금할인(21.6%) 대상에서 제외시켜 저소득층 지원확대에 활용키로 함(저소득층·중산층이 이용하는 양로시설, 경로당, 장애인·아동시설 등 다른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감면제도 현행 유지)

＊ 사례: 유료요양시설 A(입주보증금 8억원)는 월평균 1천7백만원, 유료양로시설 B(입주보증금 3~8억원)는 월평균 2천3백만원 감면

저소득층 에너지 설비 예산 대폭 확대

□ 기타 **저소득층이 에너지 설비를 개선**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,

○ 우선 금년에는 저소득층, 사회복지시설 대상의 **전력설비 효율향상 사업**(형광등, 컨센트 교체 등)과 **전기안전 점검사업**을 추가 지원키로 함

□ **'12년에는 저소득층 지원예산과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,** 이를 위해 **관련예산을 대폭 증액**키로 함

○ 특히 민간모금으로 추진하던 **긴급연료 지원 사업**에 **정부재정을 신규 투입**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,

＊ 지원내용 : 동절기에 기초생활수급가구, 차상위계층 등에 **등유 200L, LPG 50kg을 지원**

○ 아울러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을 위한 **에너지효율 개선사업도 대폭 확대**키로 함

3. 전기요금의 수요조절 기능 강화

계시별 차등 요금 조정

□ 이번 요금조정에서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는 일반용·산업용·교육용의 경우 **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**함

○ '09년 이후 동계 최대전력이 하계 최대전력을 초과중이나, **겨울철 요금의 원가회수율이 낮아 겨울철 전력수요 절감 효과가 낮다**는 지적을 받아왔음

＊ 계절별 요금조정율

구 분	여름철	봄가을철	겨울철
일반용·교육용·산업용(평균)	4.4%	4.3%	7.9%

□ 또한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**일반용(고압)의 경부하 시간대**(23~09시) **요금을 대폭 인상**함

*** 일반용을(고압) 시간대별 요금조정을**

경부하 시간대(10시간)	중간부하시간대(8~9시간)	최대부하시간대(5~6시간)
8.7%	5.6%	5.6%

○ 정부는 우선 대형빌딩 등에 대해 심야 경부하 시간대의 에너지 절약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

주택용 계시별요금제 시범사업 추진

□ 또한 8.1일부터 **주택용에 대해 선택형 계시(季時)별 요금제**를 시범 도입하기로 함

○ 선택형 계시별 요금제는 현재 단일 요금제만 적용되는 **주택용 요금에 대해 다양한 요금제를 추가 제공**함으로써 **소비자가 사용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스스로 선택**해서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**전기요금을 절감**할 수 있는 제도임

○ 금년에는 우선 **전자식 전력량계가 설치된 1,1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**을 실시하고,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**'1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**할 예정임

*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계획: ('10년) 44만호 기설치, ('11년) 75만호 추가 설치 예정, ('20년까지) 1,800만호에 전면 보급

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 추진(2012년)

□ 2012년부터는 **대규모 산업용·일반용 기업**을 대상으로 **전력피크를 줄일 수 있도록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을 추진**키로 함

○ 피크요금제는 **희망 소비자에 한해 전력피크 발생일과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**하고, **부하가 낮은 일자와 시간대에 낮은 요금**을 부과함으로써 전력수요를 분산시키는 제도로 미국, 프랑스, 대만 등 외국에서도 널리 시행되고 있음

4.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강화

□ 전기요금이 인상되어도 에너지 효율향상으로 **에너지 비용절감이 가능**한 다양한 방안을 **부문별로 마련하여 추진**하기로 함

① **(가 정) 2,000억 규모의 자금을 확보**하여, **저소득층·영세상인 등을 중심**으로 **에너지 진단** 등을 통해 **지원 우선순위를 결정**하고, 해당가구에 대해서는 시설교체에 필요한 융자와 보조금을 지급

○ 국민들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 유도를 위해 **전기요금 고지서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개편**하여, 고지서에 에너지 절약 **매뉴얼과** 각 가정의 **에너지 소비현황***을 정보로 제공

* 예시) 귀하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xx입니다.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.

○ 또한 전국 150만 가구가 참여한 **1만 에너지 절약 우수가구 참가자**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량 **정보**(전년대비, 참가자 대비) 제공과 함께 에너지 공기업 등이 **직접 현장을 방문**하여 **컨설팅을 지원**하고 **필요시 시설개체에 필요한 자금**도 제공

② **(산 업)** "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사업"을 **중소기업** 중심으로 **개편,** 하고, **대-중소 동반감축**을 위한 **그린 크레딧을 활성화**하는 등 중소기업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,

○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활성화 관련 **자금, 세제*, 법**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추진

* '11년 일몰예정인 **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연장, 공제대상 확대** 등

③ **(교 육)** 교육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**진단비용 및 ESCO 자금을 확대 지원**하는 등 **그린 스쿨조성**을 추진

④ **(에너지 다소비 기기)** 국가 전력소모의 40%를 차지하고 산업분야 대표적인 부품인 **삼상유도 전동기(모터)**에 대해서는

○ **'15년부터** 단계적으로 **프리미엄급 생산·판매를 의무화**하여 **저효율 전동기를 점차 시장에서 퇴출**할 계획임

○ **동계 전력피크의 주원인**인 **멀티히트펌프시스템(EHP)는 금년중** ESCO융자 등 혜택이 주어지는 **고효율인증 대상 품목**에서 **제외**하고 **에너지소비 효율등급 대상으로 전환**을 추진하며,

- 겨울철 전력피크의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서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**전기온풍기 등 전열기**에 대한 **에너지 비용 표시제도를 금년말까지 도입**하여 **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**할 예정

○ 또한, **냉장고, 세탁기** 등 가정내 전기소비 비중이 큰 주요 가전제품은 현행보다 **20~30% 높은 수준으로 효율등급 기준을 상향조정**하고

○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 확장으로 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는 **데이터센터**에 대해서는 **주요장비에 대한 효율기준을 마련**하고, **데이터센터 시스템**에 대한 **인증기준도 도입**할 계획

5. 강도 높은 한전 경영효율화 추진

□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**최대한 자체 흡수**하기 위해 **한전의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 대책을 추진**키로 함

□ 송·배전, 발전 부문 효율화 등 **한전의 내부적 효율 증진**을 통해 **매년 약 1조원 이상의 원가절감 노력을 강구**할 계획임

○ **(송·배전) 송전 철탑 설치간격 30% 확대**, 변전소 건설공법 개선, 주상변압기 컴팩트화 등을 통해 송·배전 투자비를 절감하고,

○ **(발전)** 발전사간 **선박운영 협력** 및 **발전정비 예비품 공동 운영** 등을 통해 운송료와 재고 구매비용을 절감하며,

○ **(운영) 물류센터 광역화**(14개→8개), **자가통신망 확대** 등을 통해 운영 시스템을 효율화할 계획임

□ 아울러 **중장기적**으로 **IT 기술 접목** 등을 통한 전력효율 향상으로 **전력공급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**해 나갈 계획임

* 송전 손실을 최소화하는 초전도 케이블 적용, 친환경·고효율 발전모델 개발, IT 융합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8대 기술개발사업 추진 중

참고1 전기요금 현황 및 문제점

□ **(요금수준) 전기요금**은 **원가에 미달**하는 상황(원가회수율 86.1%)

<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추이 >

연 도	2007	2008	2009	2010	2011(전망)
원가회수율(%)	93.7%	77.7%	91.5%	90.2%	86.1%

○ 주택용,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 등 용도를 구분하고 **용도별로 원가회수율을 차등 적용중**

* 원가회수율('10년, 단위 : %) : 주택(94.2), 일반(96.3), 교육(84.6), 산업(89.4), 농사(36.7), 가로등(78.1)

○ 그간 물가영향 등 정책적 고려에 의해 **전기요금은 소폭 인상**

* '01~'10년간 소비자물가 37%↑, 전기요금 16%↑

○ 국내 전기요금은 해외 국가와 비교시 저렴하며 **OECD국가**들에 비해 **절반이하 수준**

< '09년도 전기요금 국제비교(한전 조사) >

구 분	한 국	일 본	미 국	캐나다	프랑스	영 국
원화기준(원/kWh)	**83.59**	**202.30**	**115.48**	**87.56**	**142.19**	**184.39**
(요금수준, %)	(100)	(242)	(138)	(115)	(170)	(221)

* 주택용은 OECD 평균의 47.8% 수준, 산업용은 OECD 평균의 54.6%('10년 IEA)

○ 국내 **전력소비**는 전체 에너지 및 경제성장률보다 **가파르게 증가**

* '01~'10년간 전력소비(68%↑), 최종에너지소비(27%↑), GDP(44%↑)

□ **(가격왜곡)** 원가 이하 낮은 요금은 **에너지원간 사용 왜곡 초래**

○ 2차 에너지인 **전력**이 **석유가격보다 낮은 기현상** 발생

* 1차에너지를 전환하여 전력 생산(손실 60%), 대부분 국가에서 석유대비 전기료가 비쌈

< 가정용 에너지원별 상대가격비교(09년, IEA) >

구 분	한국	OECD 평균	미국	영국	일본(07년)
석 유	100	100	100	100	100
전 력	83.3	213.3	181.3	303.4	252

○ 전기요금규제로 인해 석유류 소비가 **전기로 대체**되는 현상 심화

* 등유는 가격이 자유화('01대비 87%↑)되어 소비가 감소('01대비 52%↓)한 반면 전기는 소폭 인상('01대비 16%↑)되어 소비가 대폭 증가('01대비 68%↑)

가격 추이 ('01년 =100)



소비량 추이 ('01년 = 100)



※ 가격왜곡에 따른 전력대체 사례(예시)

- 산업 : 주물공장 동력(석탄, 경유), 컨테이너 크레인 동력(경유) → 전기
- 농가 : 하우스난방(면세유), 농산물건조(면세유) → 전기보일러·열건조 전환
- 학교 : 가스난방(GHP, 중앙난방) → 시스템에어컨(EHP)

□ **(전기사업자 적자)** 한전 재무구조 악화로 **전력부문 투자 재원 확보 애로**

○ 한전은 3년 연속 **영업 적자** 및 이로 인한 **차입금** 증가

< 한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(07~10년, 단위 : 원)>

	'07년	'08년	'09년	'10년	'08~'10
영 업 이 익	0.38조	△3.7조	△0.6조	△1.8조	△6.1조
당 기 순 이 익	1.56조	△3.0조	△777억	△614억	△3.1조

○ 원가 이하 요금으로 인한 사업자 부채는 국민전체가 미래에 부담

참고2 금년도 전기요금 조정 내용

□ **금년도 전기요금 조정** : 금년 8.1일자로 **평균 4.9% 인상**

□ **서민·자영업자·중소기업**을 배려한 차등 요금조정

○ **(약자배려) 서민계층, 자영업자, 중소기업 부문은 최소 인상**하고 대형건물 등 **에너지 과소비 부문은 대폭 인상**

- **(농사용) 동결**
- **(주택용) 물가상승률 절반 이내** 인상
- **(일반용, 산업용) 저압요금**(자영업자용·중소기업용)**은 소폭** 조정, **고압요금**(대형건물용·대기업용)**은 중폭 이상** 조정

※ 용도별 요금조정안(단위: %)

구 분		평균	주택	일반			산업			교육	가로등	심야
				저압	고압	계	저압	고압	계			
조 정 률		4.9	2.0	2.3	6.3	4.4	2.3	6.3	6.1	6.3	6.3	8.0
원가 회수율	조정전	86.1	87.9	88.2	92.3	90.3	79.5	87.2	86.8	81.9	77.1	66.3
	조정후	90.3	89.7	90.3	98.1	94.3	81.4	92.7	92.1	87.1	82.0	71.6

* 농사용 동결(원가회수율 34.1%)

□ **요금조정**(4.9%) **효과**

○ 가정(월평균 사용량 312kWh, 전기요금 4만원 기준)은 월 800원 증가, 산업체(월평균 468만원)는 월 28만6천원 부담 증가

○ 소비자 물가는 연 0.038%p 상승, 생산자물가는 연 0.122%p 상승

○ 전력소비량은 연 51억kWh감소하고, LNG수입도 연 6,176억원 감소

참고3 취약계층 부담 경감 방안

□ 저소득층 대상 전기요금 정액감면 시행

○ **(감면제도현황)** 현행 제도는 **할인 한도가 없는 정률식 감면**(월 2~21.6%)

* '10년 기준 220만 가구(전체 2,078만호의 10.5%)에 2,750억원 감면

- 전기사용량이 증가할수록 혜택이 증가하고,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저소득층은 혜택이 작은 제도

○ **(저소득층 정액감면)** 저소득층 대상의 **기존 정률식 요금 감면을 정액감면*으로 전환**하여 취약계층 지원 강화

* 에너지 저소비 가구는 혜택이 증가, 과소비 가구는 혜택이 감소

- **기초수급자, 장애인, 유공자**에 대해 **최소 생활 보장 수준의 전력**에 해당하는 요금(월 8천원, 110kWh)을 감면하여, 요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 보전
- **기초수급자**는 요금감면 혜택이 **대폭 확대**(월평균 5,231원→ 8천원)
- **차상위계층***에 대한 감면금액을 **대폭 확대**(월평균 616원→ 월 2천원)

* 현재 할인율(2%)이 낮아 할인 수혜율이 미미, 복지부 등록 차상위 가구 : 42만

○ **(대가족·3자녀가구 절약 유도)** 기존 할인제도를 유지하되 전력 과소비 가구의 과도한 혜택 방지를 위해 **감면상한 월 1만2천원 설정**

* 대가족 할인 : 300~600kWh 사용량(누진 4~6단계)에 대해 1단계 낮은 요금 적용
* 3자녀 이상 가구 : 20% 할인 적용, 누진경감에도 해당되어 유리한 제도 자동 적용

○ **(사회복지시설 대상정비)** 고소득층이 입소하는 **노인복지주택, 유료양로시설, 유료노인요양시설**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

*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, 제18조에 따른 유료노인시설 등

※ 전기요금감면 제도 개편전·후 비교

종류	복지 할인						주택용 누진용 경감
대상	장 애 인	상 이 유 공 자	독 립 유 공 자	기초생활 수 급 자	차 상 위 계 층	사 회 복지시설	대 가 족 · 3 자 녀 이 상
현행 (정률감면)	20%			21.6%	2%	21.6%	1단계 낮은 요율 또는 20% 감면
개선 (정액감면)	정액감면(월 8천원)				정액감면 (월2천원)	21.6%	1단계 낮은 요율 또는 20%감면(월한도1.2만원)

□ 저소득층 에너지설비·연료비 지원예산 대폭 확대

○ **(방향) 저소득층 에너지설비 개선·연료비 지원 예산**을 대폭 확대

- '11년에는 저소득층, 사회복지시설 대상의 전력설비 효율향상사업(형광등, 컨센트 교체 등)과 전기안전점검사업을 추가 지원

- '12년에는 저소득층 **지원대상과 규모**를 크게 확대하고, 이를 위해 관련예산을 대폭 증액키로 함

○ **(긴급연료지원)** 소규모 민간모금으로 추진하던 **긴급연료지원사업은** '12년부터 정부재정을 신규투입하여 **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**

* 지원내용 : 동절기에 기초생활수급가구, 차상위계층 등에 **등유 200L, LPG 50kg 지원**

○ **(에너지설비개선)**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효율개선 및 에너지구입 비용 절감을 위한 **효율개선사업도 대폭 확대**

지원사업	사업 설명
전력효율향상	저소득층·복지시설의 전력설비를 고효율로 교체
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창호교체, 단열시공 및 보일러·냉장고 교체 지원
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	국민임대·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·열,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무상보급

참고4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시범적용 계획

□ 배경 및 필요성

○ **(배경)** 스마트그리드 활성화 계획 발표시('11.2.22일) 금년 7월부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시범 도입키로 함

○ **(시범운영 필요성)** 신규 요금제의 적정성과 수요관리 효과 분석 필요

- 현행 요금과 신규요금제 간의 요금부담 중립성 유지 여부 검증
- 계절별·시간대별 구분 기준 검토 및 수요 반응 효과 분석

□ 시범적용 방안

○ **(대상가구)** 전자식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 중 **총 1,100가구**

- 전자식전력량계 설치 고객('10년 기준 44만가구) 중 수요반응 분석이 가능한 월 300kWh 이상 사용 고객(약 13만가구) 중 참여가구 모집 완료

  * 대상가구 모집(안): 대도시(550가구), 중소도시(380가구), 농어촌(165가구)

○ **(기간) '11. 8. 1일 이후 6개월간**

○ **(요금표)** 계절시간대별 구분, 가변형 적용여부 등에 따라 총 6개 요금표

① 계절 : 3계절(동계·하계·춘추계) **② 시간 : 2개**(주·야간)**, 3개**(최대·중간·경부하) **③ 누진제 또는 가변형요금**

○ **(방안)** 참여 가구에게 **요금정보를 제공**하고, **인센티브를 지급**

- 시범운영 서비스 포털을 구축하여 참여가구에게 전기사용(부하 패턴) 및 요금관련 정보(현행요금, 신규요금제 비교)를 제공
- 현행요금과 신규요금제 간 차액을 인센티브로 지급

  * 현행요금 > 계시별요금 : 차액을 인센티브 지급, 현행요금 ≤ 계시별요금 : 현행요금

참고5 에너지효율향상 방안

◈ 전기 요금인상으로 가계부담이 늘어나더라도, **에너지 효율향상으로 에너지 비용절감이 가능**한 방안 마련·시행

□ 가정부문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체 지원

○ **(사업 개요)** 에너지 진단을 통해 **지원 우선순위를 결정**하고, 해당가구에 **보조금·융자** 등을 **집중지원**

○ **(대상 선정)** **"에너지 다이어트 주치의**(ESCO업체, 한전, 난방공사 등)"를 운영,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**자금지원 우선순위 결정**

- **저소득층·영세상인** 밀집지역, 1만 에너지 절약 **우수가구 참가자, 노후건물** 등 우선지원

○ **(자금 지원)** 에너지 공기업 **지원사업** 및 정부 **정책자금** 등을 통해 '12년 **2,000억원 지원**

- **고효율 조명, 보일러 등 냉난방 기기** 등 교체에 보조금 및 융자자금을 MIX하여 지급

□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운동 전개

○ **(관리비 고지서 개선)** 각 가정 에너지 사용량을 **이웃집 사용량과 비교**, 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현황을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표시

○ **(에너지절감 방법 전파)** 다양한 매체를 통한 **실천 매뉴얼 배포**

- **요금 고지서 개선 :** 일반가정의 **전기요금 고지서**를 통해 월별(또는 계절별)로 에너지 **효율개선 및 절약요령 제공**

- **절약 홍보물 배포 :** 반상회, 지역설명회, 대규모 유통시설(마트, 백화점), 금융기관(은행), 공공기관(주민센터 등)을 통한 홍보물 배포

□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

○ **(중소기업 지원)** 중소기업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제반지원

- **감축실적 구매 :**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가 구매하는 **'온실가스 감축사업'**을 **중소기업 중심**으로 **개편**

- **(대·중소 동반감축)**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**에너지 효율시설에 투자**하고, 이에 따른 **감축실적**을 **목표관리제 실적**으로 인정

  * 대기업의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**7% 세액공제 지원**

- **(ECO-BEST)**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한 **효율·안전·재무**분야 최고 전문가 집단의 **원스톱 진단 제공**

○ **(에너지 효율시스템 보급) 에너지 경영시스템, 지능형 에너지망** 등 효율향상 제고를 위한 **전사적 시스템 보급**

□ 에너지 다소비 기기 효율향상 지원

○ **(삼상유도 전동기)** 일반전동기를 시장에서 **퇴출, '15년부터** 단계적으로 **프리미엄급 생산·판매를 의무화**

○ **(EHP)** ESCO융자 등 혜택이 주어지는 **고효율인증 대상 품목**에서 제외하여 **효율등급 대상으로 전환**

○ **(IDC) 주요장비 및 시스템**에 대한 **최저효율 기준마련** 및 그린 인증제도 도입

○ **(가전제품)** 글로벌 수준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보다 **20~30% 높은 수준*으로 효율등급제 강화**

  * 1등급 판매비중 : 전기냉난방기 61%, 김치냉장고 59%, 전기세탁기 49%

○ **(전열기) 무분별한 전열기 사용을 억제**하기 위해 **전기온풍기, 전기장판 등**에 대한 **에너지 비용표시제 도입**

참고6 한전 경영효율화 방안

◈ **발전, 송·배전 부문 효율화** 등 **한전 내부적 효율 증진**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의 **자체 흡수** 추진

☞ 내부 효율화로 **매년 약 1조원 이상의 원가 절감 노력** 강구

1 송배전 효율화

○ **송전 철탑의 설치간격 30% 확대**로 투자비 15% 절감

○ **변전소 건설공법 개선**으로 건설비 **34%** 절감

○ **주상변압기 컴팩트화**로 공사비 26% 절감

2 발전 부문 효율화

○ **발전사간 선박 운영 협력**으로 체선료 및 운송료 절감

○ **정비 예비품의 공동 운영**으로 재고관리비용 최소화

3 운영 효율화

○ **물류센터 광역화**(14개→8개)로 저장시설면적 28% 축소

○ **자가통신망 확대**로 임대 통신비 절감

◈ **중장기적**으로는 **IT 기술 접목** 등을 통한 전력효율 향상으로 **전력공급 비용의 획기적 절감 추진** (8대 기술개발사업 추진)